

저무는 2018년,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담양 30일까지 산타축제
7080음악다방·야외전시
'산타마을' 메타프로방스
광주 양림동 트리축제
국악협회 31일 송년 공연
29일 문화단체 '혼신' 무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광주 '양림동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에 참가한 방문객이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보자. 근대 유산을 품고 있는 광주 양림동과 담양에서는 트리축제와 산타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지역 국악인들이 총출동하는 흥겨운 국악공연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개최하는 산타축제, '산타와 나누는 겨울이야기'는 30일까지 중앙공원, 메타프로방스, 해동주조장 등에서 열린다.

산타축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트리과 대형 산타 조형물, 대나무에 걸린 특색 있는 야간조명 등도 만나 볼 수 있는 축제로 특히 해동주조장 일원에서는 7080음악다방, 빛의 정원 야외전시, 비주얼 아트 등으로 이뤄진 '해동 빛의 정원' 행사가 열린다.

(주)씨쏘뮤지컬컴퍼니가 해동주조장에서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다방'은 7080 시절 음악다방을 재현한 추억의 프로그램이다. 주최측은 DJ부스를 마련해 방문객이 전달한 사연을 직접 읽고 그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는 과거 음악다방을 모습을 재현했다. 또 당시 인기 있었던 잡지와 만화책도 읽을 수 있으며 소원 트리와 함께 새해에 모인 우편물들을 다시 작성자에게 보내주는 '느린 우체통도 운영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추억의 먹거리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주말에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그 시절에 있었던 다양한 캐릭터(선도부원·문학소녀 등)로 분장한 배우

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다.

예쁜 집들과 카페,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 메타프로방스는 산타마을로 변신했다. 진입로에 6m 높이의 대형 산타, 트리터널 등을 연출했으며 바로 옆 메타세쿼이아길 입구 가로수 두 그루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며졌다.

양림동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는 오는 31일까지 양림동 곳곳에서 열린다.

양림동행정복지센터와 꽃밭교회 사거리 앞에는 3m 크기의 트리가 조성됐으며 양림로 거리 주변에도 기다란 줄 모양의 트리가 설치됐다. 또 평간마을 등에는 포도존과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다.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돼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매 주말 공연과 기념제 미나리를 진행한 '광주문화운동 40주년' 행사는 오는 29일 주제공연 '혼신'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공연은 광주 문화운동에서

발자취를 남긴 '춤추는 나무', '극단 토박이', '놀이패 신명', (사)내벗소리민족에 솔단 등이 함께 꾸민다. 이번 무대에서는 극단 토박이를 창단한 고(故) 박호선 작가가 각색한 '광대'를 범농스의 음악을 접목해 새롭게 탄생시켰다. 오후 3시 문화전당 예술극장 2. 문의 062-529-1156.

(사)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광주국악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2018 빛고을국악대축제 '송년국악한마당'을 연다. 올해 25번째 열리는 송년국악한마당은 합태선 광주국악협회 회장이 총감독을 맡고 장호준씨가 연출했다. 공연은 사물판굿, 입체춤, 국악 합주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먼저 채춘례씨 등으로 구성된 난타팀이 '두둥둥 천지를 울린다'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고법 예능 이수자 박치현 고수가 제자들과

소리북 합주를 한다. 박치현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이은하·박애화·정선심·함승우의 '춘향가' 중 '어사상봉' 입체창 무대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지영씨 등 7명은 '박병천류진도복춤'으로 분위기를 돋우고 가수 임인식·장병영씨의 축하 공연도 함께 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524-83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야음악회'에서는 '디오 오케스트라'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을 연주하고 '포기와 베스' 중 '썸머타임' 등 주옥 같은 아리아를 선보인다. 31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1.

또 같은 날 '김원중의 달거리'는 '국악계의 신성' 공미연(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전수자) 명창, '김원중과 느티나무 밴드', 소프라노 유현민, 바카 프로젝트 등과 함께 104번째 공연을 연다.

/김미은·백희준 기자 mekim@kwangju.co.kr

역사 인물과 지인들의 '동행'

서기문전 내년 1월까지 광주 소암미술관

서기문 작가는 최근 몇 년간 역사 속 주요 인물들을 패러디한 작업에 주력해왔다. 지난 해 열렸던 '미술과 시대정신'전을 통해서 시련의 시기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정신의 근거를 마련해준 인물들에 주목, 그들의 정신과 가치를 현재화했다.



'바우하우스와 시민자유대학'

서기문 작가(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개인전 '동행-일상에서 역사까지'

전이 내년 1월 31일까지 광주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 초대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리영희와 촛스기' 등 역사적 인물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작가 주변 지인들까지 '동행' 작업의 대상으로 포함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또 서기문 작가의 초기 작품들로 여백의 미와 서정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설산, 설동백, 톨립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신작 가운데는 서기문이 참여하고 시민자유대학 관계자들과 올 여름 떠난 독일 여행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 '바우하우스와 시민자유대학'이 눈에 띈다. 20

세기 초 건축과 디자인의 창조적인 잠재성을 유도하는 교육으로 시대를 선도했던 바우하우스에 재직했던 그로피우스, 칸딘스키, 클레와 시민자유대학 관계자들의 시대를 뛰어넘는, 유쾌한 조우를 상상력으로 표현해냈다.

또 광주 5·18의 기억을 자연스레 떠오르게 하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설치 작품 앞에 선 이들을 그린 '유대인 박물관'에는 참여자들의 숙연한 모습이 함께 택시에 탄 모습을 그린 '동행-국공합작'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71-7711. /김미은 기자 mekim@

해남 대흥사에서 31일 타종식·음악회

올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해남 대흥사는 무술년 한해를 보내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불자와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탑돌이와 타종식을 31일(오후 8시) 경내 일원에서 개최한다. 또한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은 음악회도 마련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기원할 예정이다.

신라시대 창건된 해남 대흥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로, 서산대사의 유물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번 행사는 31일 오후 8시 대흥사 대웅보전에서 입재식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9시에는 범종각에서 발원문 낭독, 덕담 및 타종식이 열린다.

송년음악회 역시 오후 9시30분 범종각에서 펼쳐진다. 초청가수로 김다나, 유현주가 출연해 송년과 신년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음악회 이후에는 대흥사 경내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탑 주위를 돌며 국가와 개인의 소원을 빈다. 문의 061-534-5502-3. /박성천 기자 skypark@

올해 광주·전남 독립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올해 광주전남 독립서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은 어떤 책일까? 광주전남의 독립서점 14개 서점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를 집계했다. 먼저 광주 독립서점 12곳이 선정한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은 다음과 같다.

'미주의 삶'(타인의 책 지음서점), '책기둥'(검은책방·흰책방), '내사랑 모드'(삼삼한 책방), '너를 모르는 너에게'(연지책방), '생각하는 여자는 괴롭고 함께 잔다'(소년의 서), PP(라이트라이프), '그림자가 고이는 날'(파종모종), '취향을 설계하는 곳, 초타야'(메이트 인 아날로그), '평화의 소녀상을 그리다'(동네책방 숲), '일 칸 이슬아'(책과 생활), '제가 이 여자랑

올해 광주·전남 독립서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평화의 소녀상을 그리다' 등

결혼을 한 번 해 봤는데요(러브앤프리), '나는 네 번 태어난 기억이 있다'(이상현 실)

전남 독립서점 2곳이 집계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2종이다. '모든 동물은 섹스 후 우울해진다'(완도살롱),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참 좋았다-곽재규의 신 포구기행'(순천 심다)이 그것.

이밖에 14개의 서점은 2위와 3위의 책



들도 집계해 발표했다. 모두 42종의 도서는 기존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는

독립 서점별 정체성이 반영된 다양한 책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서점이 독자들로 하여금 획일화된 독서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독서문화를 접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타인의 책 지음책방 김정국 대표는 "서점별 도서 큐레이팅 방식에 따라 판매부수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소년의 서 임인자 대표는 "서점의 지향에 따라 도서 문화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독립 서점의 존재가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010-3011-4062, 010-3256-262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양 김한호 수필가 세종문학상 수상

광양 출신 김한호(사진) 수필가가 세종문학상을 수상했다.

김 수필가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학 대축제에서 수필집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로 세종문학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문희추 한국문협 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1994년 '한국수필'에 등단한 김 수필가는 광주문인협회 부회장과 전남문인협



회 수필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수필문학상, 대한민국공무원문학상, 전남문학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고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지금까지 '수필의 이론과 창작' 등 모두 7권의 책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